

삶의 질

-15대 과제-

1. 주 5일근무제 <하>

마인츠/유시민 통신원

1994년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단체협약에 따른 주당 노동시간은 37.5~41시간이다. 서유럽에서 토요일 노동을 하는 나라는 없다. 연간 유급휴가 일수는 22~33.5일, 4~7주의 휴가를 즐긴다.

축구와 아이스하키 등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관중석이 만원상태를 이루고 여행, 스키 등 레저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이처럼 풍요한 여가시간이 낳은 현상이다.

꽃밭 가꾸기, 자동차 손수 고치기, 주말농장 등이 인기를 끄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사무직이나 공무원보다 제조업 부문의 노동시간이 주당 1시간 이상 짧기 때문인지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유벤투스 투린 등 유럽 정상급 프로축구단의 본거지는 대부분 자동차·금속산업이 밀집한 대형 공업도시들이다.

유럽 산업국의 노동시간 단축은 크게 보아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단계는 19세기 후반 수십년간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며 벌인 노동시간 단축운동이다. 어린이들까지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던 악명 높은 초기 자본주의의 노동조건은 그 결과 1차대전을 전후한 무렵엔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루 8시간·주당 48시간 노동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제2단계는 2차대전 이후 1974년 석유파동 직전까지의 호황기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1인

“노동은 여가위해 있다” ‘넉넉한 사회’ 에너지원

서유럽국 모두 토요일무·30일안팎 휴가 독일 제조업 노동시간 사무직보다 짧아



주당 노동시간이 41시간을 넘지 않는 서유럽 노동자들의 여유있는 노동조건은 19세기 이래 끈질긴 노동운동의 산물이다. 베를린 교외에서 한가한 휴일을 즐기는 독일의 한가족.

당 국민소득이 2천달러에 못 미쳤던 60년대 중반 거의 모든 산업분야의 노동시간이 주당 45시간 선을 내려섰다.

여기에는 ‘노동자의 오랜 꿈’인 ‘충분한 여가’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투구한 산업별 노조의 노력과 함께 당시의 호황도 노동자에게 유리하

게 작용했다. 74년 오일쇼크 이전까지 독일 경제는 실업률 1% 미만의 ‘과잉고용’ 상황으로 터키 등에서 2백만이 넘는 노동자를 ‘수입’해 3디(D)업종에 투입해야 했다. 노조의 교섭력이 강화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시기에 서유럽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사실상 의미를 잃었고 노사간 단체협약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3단계는 실업률이 10%를 넘보게 된 80년대 후반기이다.

독일의 경우 이 기간에 주당 노동시간이 38시간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역설적이지만 그 목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나누어가짐으로써 대량실업을 해소’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실업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치가와 경제학자, 노조와 기업인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폴크스바겐 등에서는 35시간 모델 시험에 들어갔다. 이 문제는 10%가 훨씬 넘는 실업률에 시달리는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의 노동시간 단축이 계속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풍요로운 여가시간에 근로자들이 벌이는 모든 활동들이 비록 지엔과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 분위기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주5일근무 도입’ 찬성 74%

17%반대...찬성자 64% “임금줄어도 수용”

□ 본사 설문조사

우리 나라 국민의 4분의 3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자의 63.6%는 설사 임금이 줄더라도 주5일 근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주5일 근무가 되면 하고 싶은 일로는 여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신문> 여론조사팀(팀장 원성연)이 지난 3일 전국의 20살 이상 성인 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과 주5일제 근무’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17.7%가 반대, 8.3%가 조건부 찬성 또는 조건부 반대 의견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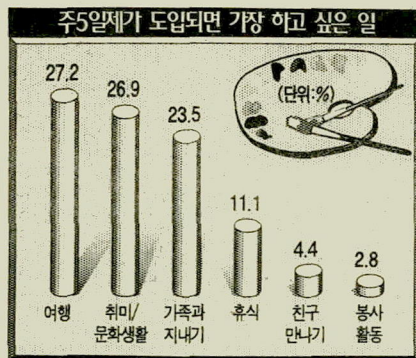
특히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63.6%는 설사

임금이 줄더라도 주5일 근무에 찬성한다고 밝혀 상당수 국민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견해를 직위별로 보면 평사원이나 대리는 85.7%, 과·차장은 76.3%, 부장은 42.3%, 이사 등 임원은 69.5%, 대표이사는 65.2%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찬성해 중간관리자인 부장급 직원들이 이 제도의 도입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입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4.9%가 ‘빠를수록 좋다’, 21.1%가 ‘3년 안에’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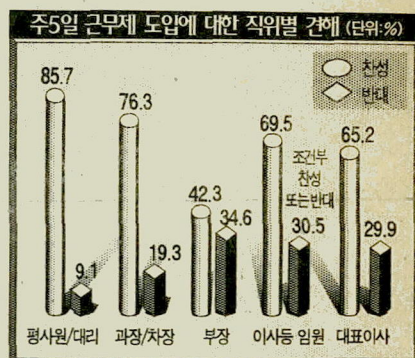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 ‘취미·문화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분한 휴식’ 27.6%,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4% 순이었다.



이에 반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국제경쟁력 약화’(48%), ‘물리적·정신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휴일이 의미가 있으므로’(16.1%), ‘쓰고 즐기려는 풍토가 확산되므로’(14.1%), ‘시기상조’(11.6%) 등을 꼽았다.

주5일 근무제가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5.2%, ‘그렇다고 생각한다’가 34.2%인 반면 ‘별로 아님’이 32.6%, ‘전혀 아님’이 6.6%로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나 주부 등을 제외한 기업의 임직원



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22.4%가 현재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주5일 근무제 또는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77.7%가 주5일 근무제가 근로의욕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 ‘차이 없음’이 15.3%, ‘도움이 안된다’는 7.2%였다. 또 주5일 근무제(격주휴무제 포함)를 시행하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5일 근무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문제없음’이 63.8%, ‘생산성 하락’이 10.8%, ‘주말에 급히 발생하는 업무를 해결할 수 없다’ 8.0% 순으로 답했다.

오상석 기자